# 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2. 춘천성시화 · 민족 · 세계선교

3. 포항선린병원 이건오 장로

6. 크리스챤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9. "삶과 죽음" 인생의 질문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6년 4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89호


## 부활의 의미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우리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부활이 내포하는 깊은 의미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활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첫째, 부활의 첫 아침은 어느 누구도 예견하거나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일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도 부활의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다.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 역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흘만의 부활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뒤 헛소문을 퍼뜨릴 것을 걱정했다.

**둘째, 부활사건의 의미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이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삼일 후에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게 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 불신자의 경우 그런 신비한 종교적 현상 자체를 믿지 않는다. 사람의 과학법칙 외에는 아무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지 3일된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 부류는 자칭 신자이고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역시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사람이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다.

**세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이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며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임을 생각해야 한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즉어 있는 예수님인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만 살았던 분이 아니고, 나의 추억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넷째, 부활의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15:20)라고 말씀하고 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죄를 대신 해서 죽는 일만 하셨다면 부활의 사건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속해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이시기 원하셨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인류의 미래에 분명한 희망을 주신 것이다.** 핵폭탄이나 생태학적 재앙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우주의 주님, 그분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살린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도 그를 따르는 이들을 모든 속박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 누리는 4월이 되기를 소망한다.

[글 편집부]



### 이달의 말씀

**마가복음 16:16-17**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5월 31일 지방선거**

춘천과 강원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시킬 비전과 지혜를 갖춘 겸손하고 복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 평화를 위한 십자가대행진**

4월16일 주일 새벽5시 부활절연합예배 후, 오후 3시에는 평화를위한 십자가대행진이 열리게 된다. 이에 춘천의 많은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통해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제1기 성시아카데미**

3월 21일을 시작으로 12주간 이어지는 성시아카데미를 통해 믿음의 빌알 같은 영적 추수군들로 성장되고, 교회에는 헌신된 일꾼이요 춘천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세울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일군들이 배출되도록.

**· 교육의 회복과 변화**

춘천에 중요한 현안이 된 외국어고등학교의 개설이 하나님의 일군을 양성하며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하는 중요한전략 속에서 춘천에 세워질 수있도록.
그리고 기독교 대안 학교인 아가피아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지도자들이 양육되고, 미래 성시지도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 각 선교단체의 의욕적인 활동**

강원대 기독교수선교회와 대학선교단체가 함께 주관하는 5월 11일 'EF (Evangel Festival)'를 통해 캠퍼스 내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청소년 선교단체인 예스컴의 여러 사역을 통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특 집

## 5.31지방선거에 즈음하여 2

# "춘천성시화 · 민족 · 세계선교"

### 1. 5월 31일 지방선거를 위해

춘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부름 받은 도시이다. 한반도 4대 강의 근원이 모두 시작되는 곳으로서 한반도의 허리이며 심장과 같은 지정학적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의 수부도시이다. 이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속에서 72년부터 시작된 성시화운동은 그 후 민족복음화운동으로, 또 세계복음화운동으로 발전을 하며 선교의 발판을 놓기까지 그 근원 깊숙한 곳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 문화 교육 등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복음적 도시 생명의 도시로서 이 도시 안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할 터인데, 아직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다. 오히려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태권도 공원의 무산, 특수 교육기관의 타 도시 이전,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의 불선정 등이 이어져 오며 도시는 비전을 잃어가고 있고 시민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인해 좌절감은 느끼고 있다.



그러나 춘천은 반드시 아름답고 복된 도시로 거듭날 기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를 믿음의 눈 지혜의 눈을 뜨고 찬란하고 복된 내일을 열어갈 참된 지도자, 화목과 화합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것이다. 결코 자기의 가까운 지인이라던가 학연이나 이해관계 등의 개인적인 인정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바른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2.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강원도 내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는 특수 고등학교로서 강원도의 일꾼 및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기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원주에는 과학고가 설립되고 강릉에는 예술고가 설립되어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및 시민의 자존감을 세우며 지역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특수고등학교가 없는 춘천에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지만 메스컴에 의하면 교육청은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과 가능성을 열고 공정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암담한 많은 난제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방안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현재 가평에 위치한 최고급형 외국어 학교도 이단에 의해 은영되고 있다는 말이 있고, 춘천의 외국어 고등학교의 배정을 위해서 기독교의 이단으로 지목된 곳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준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오히려 교육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하던 교계는 도리어 이때 잠잠하게 잠들어 있는 듯하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과 단합된 마음, 하나됨으로 일어나야 할 때이다. 이 한반도의 미래를 짊어질 참된 교육기관이 춘천에 바로 설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바르고 건실하게 은영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위해 기도하며 움직여야 할 것이다.

### 3. 인도 비하르에 돕고 있는 새 역사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을 위해

인도의 비하르는 불교와 자이나교의 발상지로 유명한 곳인 등시에 인도의 통일을 이뤘던 무굴제국이 섰던 곳이다. 그러니 지금은 공산주의가 창궐하고 있고 척박한 환경에 인도의 평균 GNP의 8/1도 안될 정도의 열악한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이다. 마치 한국의 강원도를 연상케하듯 인도의 동부에 위치한 비하르 주에도 우리와 비슷하게 그 중심에는 인도를 상징하는 갠지즈강이 흐르고 있는 고도의 도시이다. 그러나 지금은 약 60-70%의 많은 젊은이들이 글조차 모르는 문맹 속에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고 처처에 사람을 죽이는 테러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의 변화와 복음적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약 15개의 교회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문맹퇴치학교와 여성자조그룹, 장애인 사역, 산적된 쓰레기 처리활동 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새마을 운동의 뿌리인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을 꿈꾸며 준비와 기도하고 있다.

이에 신림의 제2가나안 농군학교교장이신 김범일 장로님과 함께 춘천의 교계 지도자들이 2-3차례 인도를 직접 방문하여 인도의 지도자들을 만나 협의를 하던 중 지난 2월 인도의 압둘깔람대통령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고, 이 만남을 통해 인도와 함께 협력 경제 사회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다양하게 열리게 되었다. 인도 비하르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손길이라고 믿는다.

이에 우리 춘천의 성도증 이에 뜻을 함께 하길 원하는 분들이 모여 협력 하나되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 인도 비하르가 지금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저력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다. 이 한국에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이젠 인도를 일으키고 인도가 놀라운 신앙의 폭발지가 되어 도리어 우리가 이 땅에 가서 복음과 신앙을 배우는 넌센스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 4. 선교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젊은 차세대의 지도자들이 양육되도록

강원대 기독교수회는 이번에 캠퍼스 축제 EF를 통해 캠퍼스 내의 부흥을 열망하며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참여와 함께 적극적인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춘천의 자랑거리인 청소년 전문 선교단체인 에스컴에서도 지속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 모든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집회를 마련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에수전도단은 동부교회에서 갖는 매주 화요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림들을 찾고 있으며 한국대학생선교단체 역시 새학기 대학생들의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에 이런 다양한 선교단체들의 원활하고 건실한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후원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조영춘]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김 춘 배
김 미 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 해 비 타 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2006년 해비타트 주택 입주자 신청 안내』(모집 공고)



해비타트를 사랑하시는 후원자 자원봉사,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배후에서 기도하여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와 협조로 매년 2동 8세대가 입주하여 2005년까지 16세대가 입주하여 질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랑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 낸 사랑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2006년 금년에도 변함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2006년 해비타트 주택 입주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어 입주를 희망하시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6년 4월 17일(월) 오후 5시까지
2. 접수장소 : 해비타트 춘천지회 사무실
3. 자격요건 : 1)현재 집이 없는 자(혼인신고 후 5년 이상된 기정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기정 우선순위로 / 소년, 소녀 가정세대는 예외)
2) 춘천시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가정
3) 현재 거주하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
4) 가계 총소득이 200만원(4인 가정 기준) 이하이고, 2006년 기준 최저 생계비 소득이상인 가구
5) 입주 진 까지 500 시간 이상 건축을 위하여 협동 노동할 수 있는 가구(매월 최우시간 20시간 등
4. 신청서류 : 1)입주신청서(본회 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 초본1부(전 주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등본 1부, 호적등본 1부, 3) 지방세 세목별 납입증명서 1부(최근 3년간: 부부 ) 4)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무상 임대시 확인 서류) 5) 소득 금액 증명원 1부(일반 직장 근무자⇒ 직장에서, 자영업자일 경우⇒ 세무서에서 증명)
5. 기타사항 : 해비타트 춘천지회 문의 (전화: 254-0009), 춘천지회 다음카페 참고

♡† 해비타트 주택, 사랑의 집은 더욱 알차게 계속 지어질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웃 분들에게 알려 주셔서 동참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 새로 사랑으로 후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1.3.3.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농협(예금주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 춘천지회) 203-01-532101 계좌로 자유롭게 1구좌 3천 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033)254-0009

#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

## 포항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원장이신 이건오 장로님(한국의료선교협회 회장)과의 인터뷰



**조**: 장로님, 반갑습니다. 사랑의 의료봉사로 유명한 선린병원에 방문하여 장로님을 뵙게 되니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장로님의 신앙배경과 선린병원에 오시면서 성시화운동을 전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2명에게 이끌려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집에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던 날 할아버지는 성경을 모두 불태우시고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생활을 통해서 저는 거듭남의 영적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계기가 있었어요. 교회학교 부장님께서 설교 중에 시골에서 전도하시는 매우 감동적인 의사선생님에 대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말씀 중에 "누가 이 의사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라는 강한 질문이 나의 마음을 강타했어요. 그때 신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이 도전을 받아들여 결국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1962년 CCC(한국대학생선교회)에 가입하여 훈련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 시에는 의료팀을 이끌고 춘성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성시화운동에 적극참여 했어요. 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안복음병원에서 20년 동안 시무하면서, 장기려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로서, 홀리클럽을 통한 성시화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리클럽 회장이셨던 이영덕 장로님과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저에게 선린병원장을 섬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면을 하셨어요. 그 당시 선린병원은 한동대에 기증되었었는데요. 기증 후 병원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2002년 4월에 병원장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병원장 취임예배시 이영덕 이사장님께서 격려사를 해 주셨는데, 격려말씀은 없으시고 홀리클럽의 활동과 비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포항시장님께서 후에, 저를 만나시자 홀리클럽에 대해서 많으시더라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도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고, 기관장들이 변화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을 뵐 때마다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매주 기관장님들을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15명의 기관장 명단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린대학학장 전일평 장로님을 총무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5월 2일, 23명의 기관장들이 모여 기관장 홀리클럽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정**: 장로님께서 선린병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신 것은 포항성시화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성시화운동의 초창기 전개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해주세요

홀리클럽은 성시화운동을 이루기 위한 영역별 단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여서 홀리클럽학, 연합해 성시화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관장홀리클럽을 시작으로 하여 목회자홀리클럽, 여성홀리클럽, 청년홀립클럽 등이 연이어 결성되었어요. 청년홀리클럽을 결성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에요. 모이게 하여 일만 시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청년들의 마인드를 변화시켜 기독청년문화를 이루자는 비전을 가지고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을 초청하여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홀리클럽이 중심이 되어 포항성시화운동본부를 창립하게 되었어요. 홀리클럽과 성시화운동의 핵심사역은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매주 모이야 한다고 생각하여, 목요일 새벽기도회 6시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동안에 회원들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나누는데요,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조**: 홀리클럽을 통한 성시화운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영역별로 홀리클럽을 창립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언론분야였어요. 우리 기관장 홀리클럽을 부르조아 모임이라고 비판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목요성경공부모임에 2명의 언론인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날 성경본문이 삭개오가 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포항시장님께서 자신도 삭개오와 같이 회개해야겠다면서,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본 언론인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언론홀리클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현재 포항시에 25개 직능별 홀리클럽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제목은 제가 열심히 홀리클럽과 성시화운동을 전개한 것이 결과적으로 선린병원을 홍보한 결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 부도위기에 있었던 선린병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정**: 장로님께서는 한국의료선교협회 회장이시면서 사랑의 의료봉사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선교의 중요성과 비전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를 통한 선교는 전 세계 미전도지역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나 선교사는 전인적(영,혼,육)치유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료인은 전인적 치료를 감당하면서 복음지향적 실천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의료선교를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일차 목표는 선교기지병원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강력한 선교기지 병원을 세워서 복음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선린병원의 직원들은 1년 1개월은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선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남은 생애동안 의료선교사 양성기관인 '의료선교교육훈련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조**: 의료선교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군요. 장로님께서 전개하시는 의료선교사역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료선선교협회 산하에는 20여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긴급재해가 발생하면 의료팀이 파견됩니다. 요즘에는 선교지 사정도 많이 변했어요. 의료팀을 파견해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의과대학을 설립해 달라! 병원을 설립해 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한 개의 병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교회를 구성하여 함께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제가 의료선교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만 잘 대해 주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되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까지 오지 못하고 영, 육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합니다. 영혼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 장로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찾도록 찾으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장로님께서는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시화운동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뉴욕시장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하철에 가서 청소를 하며, 벽의 낙서를 지우고, 무임승차를 근절하려고 노력했더니, 범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에서도 성시화운동을 전후로 해서 복음화율을 조사해 보았더니, 12%에서 20%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작은 것부터 그리고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도시의 변화를 위한 교회연합과 중보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보기도운동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운동에만 멈추면 안되며 교회가 연합해서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운동을 저는 "겨자씨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겨자씨운동은 교회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 방향의 운동입니다. 첫째는 전도운동, 두 번째는 거룩운동으로써 정직운동과 경건운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또한 경건운동은 섬기는 운동이라는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돌아보아야할 대상으로 지칭되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전도와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는 운동에 전력투구하게 될 때, 마태복음 5:16절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이 성취되어 성시화운동은 힘을 얻어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조**: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의료선교"의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시: 2005년 11월 15일
장소: 포항선린병원
진행: 조영춘
글정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 캠퍼스 복음축제 (EF, Evangel Festival)

EF는 비기독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회이다. EF는 서울지역에서 시작되어 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의 학원복음화 협의회와 협력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다.

오는 5월 11일에 춘천지역에서도 EF(Evangel Festival)가 열리게 된다. 예전에는 강원대학에서 '음악과 강연의 밤'으로 실시하였던 것을 EF의 형식으로 바꾸어서 할 계획이다. 이제 춘천지역에서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기독교수회를 중심으로 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 전도집회의 발상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EF



### 1. EF(Evangel Festival)란?

EF는 복음과 전도대상자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복음을 이 시대 청년의 언어로 표현하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축제(Festival)이다.

**1) EF는 비기독 '친구'에게 '전도' 하는 축제이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친구'라고 한다. EF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 선후배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축제다. 굳이 '축제'라고 표시한 것은 전도의 의무감보다는 기존 기독청년이나 비기독청년 모두 복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2) EF는 비기독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구속, 보혈, 십자가...' 이런 용어들은 비기독청년에게 '방언(?)'과도 같다. EF는 모든 준비과정에서부터 비기독인에게만 초점을 두어야 하며, 순서에도 기독교적인 언어보다 비기독청년의 언어와 몸짓을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적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 이러한 축제들을 통하여 '복음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3) EF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며, 새생명을 향한 공동체로 체질변화를 하도록 한다.**

EF는 전도가 힘든 때에 전도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전도의 가능성과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잠자는 기독청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EF의 변화와 역사

서울과 지역학복협 주관 EF의 경우, "FUNFUN한 PARTY"로 주제를 통일하여 주제와 각 지역별 특색이 어우러진 집회를 통해 각 지역 캠퍼스와 교회의 연합 전도집회 모델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였다. 대전과 부산과 전주, 제주는 2회 이상 개최하며(대전의 경우 3회) 지역 전도집회로서 자리메김을 하였고, 서울은 외부 문화행사기획팀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캠퍼스 구성원(기독학생, 교수, 직원, 지역교회)이 주체가 되어 학복협과 동역을 통해 진행하는 캠퍼스 EF가 2004년에 5개 캠퍼스를 시작으로 올해 7개 캠퍼스, 2개 교회 EF로 확대 실시되어 청년 전도의 저변 확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성균관대나 고려대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여 한결 완성도 있는 기획과 성숙해진 진행이 돋보였으며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서울의대, 서울대, 아주대의 경우, 올해 새롭게 시도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 3. EF의 강조점

**1) 친구에게 전도한다.**

Evangel Festival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집회가 아니다.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친구나 선후배 등에게 좋은 문화 공연과 탁월한 설교자를 통해 복음을 집합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관계중심의 전도는 젊은이 전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며, 이후의 교회 정착을 비롯한 신앙 성장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2) 양육은 개별교회와 단체에서**

Evangel Festival은 학원복음화협의회에 가입한 한국의 대표적 학생 선교단체들과 270여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자리다. 그들은 이 복음축제를 통해 소중한 결단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교회와 선교단체의 몫이다. 이들이 신앙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3) 각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 하는 연합**

전도집회는 교회와 선교단체와 학생그룹을 통해 구성된 준비위원이 연합하여 기획하고, 진행하게 된다. 또한 약 3개월 전부터 각 공동체 단위에서 우정전도를 실시함으로 5월의 전도집회는 공동체마다 땀 흘린 기도와 섬김의 열매를 거두는 자리다. 이를 통해 일회성 전도집회가 갖는 약점을 극복하고, 공동체가 전도의 주체가 됨으로써 집회 전 강력한 기도의 지원과 후속 양육에 있어서 훨씬 깊은 헌신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

**4) 복음전도를 위한 원칙**

Evangel Festival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사전예약을 통해 일회성 집회가 아닌 전도할 친구나 선후배를 위한 우정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기독인과 비기독인의 참여비율 1:1을 지향하여 비기독인과 함께 오지 않는 경우, 공연장내 출입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교회 및 선교단체, 개인의 전도 활용

**1) 개인 전도 기회로 활용**

EF는 평소에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친구와 함께 한다면 생애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2) 교회 및 선교단체 새 가족반에서의 활용**

EF는 철저하게 비기독인하고만 입장이 가능하며, 미리 예약하여야 하지만, 교회(선교단체) 출석한지 얼마 안 되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새가족반의 경우에 한해서는 단체 입장이 가능하다. 새가족에게 있어서 정확한 복음제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3) 교회 및 선교단체 자체 전도집회로 활용**

EF의 후속조치는 인도해 온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대학부 자체 전도집회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전도집회로 활용했다.

이제 EF를 통해서 개인주의, 물질주의와 더불어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적 풍토로 인해 복음의 메시지나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대학문화속에 다시 한 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 본다.

[자료제공 서울 학원복음화 협의회 문의: 구영록간사 011-9058-3192]







# 과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 1) 단기선교 개요 및 목적

작년(2005)부터 사창교회(담임:김광석목사) 단기선교팀과 갈릴리교회(담임:최영조목사)의 태권도 및 워십선교팀이 연합하여 선교지의 교회개척선교를 돕는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김태민 선교사와 김주만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의 카렌족과 몽족의 교회개척을 돕기 위하여 20명(목회자2명, 평신도18명)의 단기선교팀이 지난 3월 5일(주일)부터 3월 11일까지 일주일간의 단기선교를 떠났다.

단기선교팀에게 가장 큰 벽은 언어의 장벽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도사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측면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협력하는 일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단기선교는 효과적인 증보기도 사역을 위해 현지를 방문하고 그 문화를 익히므로 더 효율적으로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 2) 단기선교의 일정 및 사역

20명의 단기선교팀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 사창리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향하였다. 인천공항에서 밤 9시 30분에 이륙하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 일행은 현지 시간으로 자정을 넘겨 새벽 1시경에 도착했다. 준비된 버스에 몸을 싣고 무려 10시간을 달려 다음날 오전 11시경 치앙마이 선교센터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잠시 등안의 수면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준비된 증보기도카드를 돌리며 계속 기도하였다. 센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바로 우리 팀은 북부 산족인 카렌족 마을로 6시간 등안 트럭을 타고 이동하였다.

어린이 선교팀이 함께 하지 못해 우리 선교팀의 평균 연령은 60세가량. 제일 젊은 분이 40세 그리고 대부분은 50, 60대의 권사님 집사님들이었고 78세의 장로님도 한방봉사를 위해 함께 동행해주셨다. 젊은 사람들도 벅찰 만큼 꽉 찬 여정을 연세 드신 분들이 잘 감당해 주셨다. 선교팀의 준비된 사역은 한방봉사와 미용봉사 그리고 어린이 풍선전도, 인형극과 드라마, 말씀사역, 증보기도사역이었다. 감사하게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세밀하게 감당해 주었다.

지면상 첫 번째 날 사역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매민교회에서 첫째 날 사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지 목회자의 요청에 따라 매민교회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을 혜가 지기 전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 지역은 아직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열악한 지역이었다. 선교사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했다. 우리 팀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정에 올랐다. 그런데 3대의 트럭이 비탈진 비포장도로를 힘겹게 올라가야만 했다. 우리는 고스란히 먼지와 매연을 먹어야 했고, 멀미를 호소하는 분들, 길로 인해 불평하는 분들도 계셨다.



우리 팀이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더 늦게 현지에 도착했을 때, 아뿔싸 현지 평신도 사역자는 우리 일행이 내일 도착하는 줄 알고 아무런 준비도 홍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행 중에는 겉으로 표현은 안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 보였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 전기도 없는 지역이라 난감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도착기도를 드리면서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자고 결단하고 봉사와 집회를 시작하였다. 촛불을 밝히고 랜턴을 비취며 준비한 말씀과 드라마를 진행하자 하나들 마을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 26가구가 모두 참석했다는 것이다. 평신도 지도자에게 이 말을 듣고,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의 계획과 준비로 선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으로 선교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되었다.

우리 팀은 저녁에 다시 매민교회로 나와야 했지만, 외국인이 처음 방문하였다고 환대하며 우리의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으로 밤 12시까지 한방치료를 하며 마을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여섯 가정에서 자진해서 우리의 잠자리를 초청해 주어서 내일의 사역을 준비하며 치앙마이에서의 첫 번째 날 잠자리를 들었다.

### 3) 단기선교의 효과와 향후 계획

대부분의 단기선교사역이 실패하는 이유는 과욕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면 대부분 실수와 실패가 뒤따른다. 선교사와 상의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교회개척선교를 통해 깨달은 것은 선교사 혼자의 힘으로는 주도하기 어려운 일을 단기선교팀을 그곳에 보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사역이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또한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가 젊은이와 청년들만의 일이 아니라 은퇴한 분들도 주부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역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밟고 온 땅과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동역하는 일이 남아 있다.

[편집부 최영조]


경원대태권도체육관 수련생모집

세계태권도선교회 할렐루야시범단춘천지회 시범단원 모집



1. 경원대학교 태권도학과 호신술 지도교수인 관장님이 직접지도.
2.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선교의 경험(방학을 이용한 태권도단기선교).

"Be sure to start whit God"



관장 정대교 (갈릴리감리교회)



※부설(음악 줄넘기 교실 · 다이어트 교실)

※경원대 유아스포츠단 모집(5~7세)

※여호수아 워십 선교단원 모집(문의:017-374-2440)

교육문의: 263-6022, 011-9791-6055 위치: 석사동 767-5 우석초등학교 정문 옆

"마음의 치유와 성숙은 자신과 상담자, 그리고 주님의 합작품입니다."

한림미술치료센터

■ 센터에서 하는 일
- ▶ 미술치료사 양성교육
- ▶ 각종 심리검사 및 지능검사
- ▶ 개인 및 그룹 미술치료 상담
- ▶ 지역사회 관련기관 지원활동

■ 미술대화 프로그램
- ▶ 좋은 엄마되기, 좋은 아빠되기, 친밀한 부부되기(자아발견 +역할교육 +의사소통)
- ▶ A.G.T(Art-therapy in the Grace & Truth):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발견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자아상 형성을 돕는 미술활동

■ 큰나래 방과후 교실: 장애아동의 평안과 즐거운 경험을 위하여!!
- ▶ 대상: 장애아동(초등학생) +통합교육을 원하는 일반초등학생
- ▶ 일시: 월-금요일, 매일 오후 3시 - 6시
- ▶ 내용: 감성놀이, 학습지도, 특별활동(storytelling, play English, 종이공예, 워십, 미술치료), 부모의 내적 에너지 개발과 역할훈련, 장애아동 형제를 위한 미술활동

☎033)263-7572 / 017-373-9273(성복순), 011-9598-1709(김지예) 카페 : cafe.daum.net/dcc
춘천시 퇴계동 959-4, 평화성결교회 2층(퇴계주공1차 정문, 트레인키퍼 부근)

탐방 I

# 이 땅에 크리스챤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제자감리교회(정해창 목사)편입니다.



춘천 등면 장학리에 위치한 제자감리교회는 '춘천연탄은행'을 운영하는 사회 참여적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이야기들은 더 깊고 진솔하다. 주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양육하여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3년 전 제자교회에 부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해창 목사. 그 아름다운 목회 현장을 함께 살펴보자.

정해창 목사의 고향은 서울이다. 춘천과의 인연이라면, 지금부터 18년 전 춘천중앙감리교회(담임: 권오서 목사)의 후원으로 춘천 근자리의 군자감리교회를 개척한 일이다. 정 목사는 군자감리교회를 5년간 묵묵히 섬겼다(1989-1994). 그 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울과 인천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목회를 했다. 그러다가 춘천 제지감리교회를 섬기던 친구 목사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이곳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정 과정엔 고민이 없지 않았다. 정 목사는 원래부터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사역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리더십 세미나'와 '멘토링 사역'으로 유명한 미국 리전트 칼리지에서 몇 년을 공부하기도 하였고, 또한 '리더십'에 관한 주제로 수편의 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자감리교회의 토양은 업밀히 말하면 척박한 농촌지역이 아닌가. 자신이 가진 목회철학을 실현하기엔 왠지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친구 목사의 기도 탓이었을까. 결국 정 목사는 모든 것을 비리고 춘천으로 오게 된다.

### 춘천연탄은행

제자교회의 주요 사역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춘천연탄은행'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 소금처럼 스며들어가야 한다는 정 목사의 평소 지론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기도 가운데 시작된 춘천연탄은행은 그해 10월에 주요 매스컴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춘천연탄은행의 선행은 이 운동이 전국으로 번져 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현재 연탄은행은 전국의 17군데에서 활동하고 있고,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 운동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시작되었다.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80%가 교회와 기독교 복지단체들이며, 지도자들의 90% 가량이 목회자인 것이 그것을 대변해 준다. 강원도에 연탄은행이 설치된 지역은 5군데이며, 정 목사는 현재 강원지역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강원도의 겨울은 혹독하리만큼 춥다. 더욱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누군가 이야기하듯 '잔인한 계절'이다. 이에 춘천연탄은행에서는 연탄이 필요한 불우이웃들에게 1개월에 100장씩의 연탄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상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독고노인들이 이 혜택을 누린다. 평균 하루 3장의 연탄이 요함을 계산할 때 100장의 연탄은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춘천연탄은행을 통해 현재 4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고, 올 겨울만도 8만장 정도가 소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고 연탄을 직접 배달할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연탄을 배달하는 인력은 몇몇 해당 교회 관계자와 지역 자원봉사자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가 부족할 때는 늘 정 목사의 가정과 교회 교우들의 몫이 된다. 정 목사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직접 봉사한다. 바쁠 때는 토요일도 시간을 내야 밖에 없다고 말한다.

연탄은행에 필요한 비용들은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질문에 정 목사는 빙그레 미소지을 뿐 직답을 피한다. 정 목사의 겸손함과 주님만을 신뢰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재단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재정의 상황을 알아본 바로는 전국의 연탄은행들이 비슷한 상황가운데 있다고 한다. 오랜 경기침체와 빈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늘면서 연탄은행이 배달해야 할 연탄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탄배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원금은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 시작한 원주연탄은행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후원금이 30% 정도 줄었다고 한다. 추운 겨울의 온기를 기다리는 이웃을 찾아 고갯길을 넘는 연탄은행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

사회참여중심의 교회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사회참여와 순수한 복음적 사명' 목회적 균형을 정 목사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 목사는 춘천연탄은행과 함께 지도자를 기르기 위한 제자훈련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물론 이 제자훈련은 기존의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보다 실제적이고 사회변혁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겠다. 정 목사의 사역과 가르침에 공감하여 서울에서부터 이곳까지 매주 함께 하는 몇몇 지체들이 있어 정 목사는 더욱 행복하고 감사하다. 정 목사는 신자들의 24시간을 가능한 함께 공유하기 원하며, 철저한 멘토링을 통해 한 사람 한사람을 하나님나라의 강력한 지도자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챤 지도자를 양육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예수 영성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멘토링 공동체, 은혜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추구하는 제자감리교회. 함께 하는 이강님 전도사, 이영해 장로 등 아름다운 교우들이 있어 정해창 목사는 행복한 목사로 불리 운다. [제자교회 ☎ 251-7141, 010-9733-5036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정]





## 회계 직원 모집

● 조 건 : 1. 연령 50세 이하의 남성
2. 교회의 집사 또는 권사

● 제출 서류 : 이력서(신앙경력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 장소 : 춘천제일감리교회 사무실

전 화 : 033) 254 - 6401, 6411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춘천시민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

담임목사 오생락

2006년 표어 Vision2011, 그 특별한 여행을 위한 새로운 출발

■ 4월의 주요행사 ■

1. 글로리아 바디워십 선교단 공연 - 16일(부활절) 오전9:00, 오전11:00
2. 주나임교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 23일(주일) 오전11:00
3. 찬양사역자 손재석과 함께하는 파워 워십(찬양집회) - 23일(주일) 오후3:00
(특별출연:D-DAY, 최미경)

예배시간 주일1부/오전7:30, 2부/오전9:00, 3부/오전11:00, 오후예배/오후2:00
수요예배/오후7:30, 유치부/주일 오전11:00, 이동부/주일 오전9:00
청소년부/토 오후5:00, 청년부/토 오후7:30

☎262-8534, 262-8537 춘천시 석사동 802-3번지 (아이마트 맞은편)

소개합니다

# 한국기독학생회(IVF)

**IFES (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는**

IVF의 국제적인 조직으로서 1947년에 설립된 이래로 현재 세계 142개국에 있는 회원 단체들을 Networking하고 있으며, 현재 IFES에 가입된 회원 수는 30만명 정도이다. 국제 본부는 영국 런던에 위치해 있으며, IFES의 비전은 IFES 회원 운동체들을 통해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IFES의 우선적인 사명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각 나라를 이끌어갈 학생 증인들을 개발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한국기독학생회(Korea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는**

"캠퍼스 복음화, 기독 학사 운동, 세계선교"를 목표로 하는 복음주의적인 운동체이다. 특히, 올해 50주년을 맞이하여 1만 명의 학생들과 2천개의 소그룹과 30%의 비그리스도인으로 구성을 비전으로 삼고 전도에 모든 IVF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불신자를 품을 수 있는 소그룹운동과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의 모든 IVF체제가 체질변혁을 위해 컨설팅 및 비전인 작업을 하고 있다.

중점전략으로 1)혁신적인 복음전도 개발 및 실행 2)역동적인 소그룹 및 공동체로의 체질변혁 3)학생 리더십 개발 4)선교동원과 헌신자 발굴 5)캠퍼스 구조변화에 따른 전략 마련 6)사역시스템 강화 7)복음주의 학생운동의 연합을 필두로 더욱 강력하게 캠퍼스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사역을 강화하고 있다.

1956년 한국에서 IVF 운동이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 중앙회와 IVF 그리고 전국 16개 지방회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364개 대학(4년제, 산업, 전문, 기능대학 포함) 중 141개 대학에 IVF 모임이 있어 4806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IVF가 배출한 학사들은 대략 5000천여명 정도로, 현재 3000여명의 학사들이 연결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강원(춘천)IVF는**

1969년 개척되어 지난 37년 동안 캠퍼스복음화를 위해 귀납법적 말씀연구와 기도 그리고 전도와 소그룹운동에 우선순위에 두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1987년에는 강릉지방회를, 1992년에는 원주지방회를 분할시키면서 지금까지 성장 발전하여 왔다. 강원도의 모든 대학에 IVF운동을 개척하였고, 특히 춘천에 5개 대학 250여명의 학생들이 IVF운동을 감당하고 있다.

IVF운동은 철저히 교회를 섬기는 운동으로 복음으로 훈련시켜 지역교회의 일꾼으로 공급하는 수원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지금은 더욱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헌신된 제자를 양육하는데 모든 역량을 감당하고 있다. 앞으로의 IVF인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글 강원(춘천) IVF 대표간사 박용한 목사 전화: 252-5200]

영혼의 양식

# 이름에 합당한 생활 - 사도행전11:19~26



신남교회 양기태 목사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 주기 위해서 유명한 작명가나 목사에게 찾아가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성도(聖徒)'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벧전1:15)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도록 우리의 생각이,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서 완전히 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곳 시민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안디옥 교인들처럼 살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취미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한 마디의 말이나 작은 행동들, 삶의 모습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말아야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좋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귀중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삼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알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지현 집사(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승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삶

# 주님의 향기를 뿜게 하소서!

## 기독기업체 탐방은 와이신협 심인섭 이사장(신성감리교회 장로)편입니다



올해 2월에 와이신협에 부임한 심인섭 이사장.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2002년 8월에 정년퇴임했으며 그 후에도 계약직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기독교계에서는 감리교 동부연회 남선교회장을 2년 동안 역임했다.

그가 이사장으로 부임하자 이사들은 직원들을 칠저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기관이기에 매사 조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고를 낼 수 있는 시대에 관리자가 칠저히 살피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모든 직원이 매일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일하도록 기도로서 하루업무를 시작하게 하였다. 그는 직원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게 업무를 볼 때에만 지역교계나 지역사회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 가슴에 새겨진 한마디

심인섭 장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은 친구들 때문이었다. 같은 반 친구들이 교회에 가자고 해서 당시 춘천중앙감리교회에 신앙생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농업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는 농업에 관한 연구를 좋아해서 농대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담임선생님이 그의 길을 틀어 놓았다. 그에게서울대 문리대 사범대에 진학할 것을 권면하셨던 것이다. 지금도 농업대학으로 갔었다면 하는 생각이 든단다. 하지만 그때 바뀐 인생방향이 그의 오늘이 있게 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오묘하다. 우리의 생각이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시기 때문일 것이다.



본래 심장로의 집안은 무속신앙이 강했다. 하지만 도시로 유학 와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 반대를 받지 않았다.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가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했더니 어머님이 교회에 따라 나오셨고, 지금은 어머님 형제들과 심 장로 형제들 모두 주님을 믿게 되었다. 심장로의 신앙생활은 마치 모태신앙처럼 큰 어려움이 없이 진전하게 주님의 인도를 경험했다. 그는 신앙생활에 별 굴곡이 없어서 극적인 간증을 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별 장애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지만 별 굴곡이 없다고 할지라도 잔물결은 있기 마련. 그는 군대생활 중에 신앙의 시험을 거쳐야 했다. 주위 사람들이 다들 하는 행동이라며 유혹하다가 자신들을 따라하지 않자 괴롭혔던 것이다. 그는 그때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지는 못했다고 고백한다. 결국 그는 오늘날까지 잊히지지 않는 말을 듣게 된다. 어느 날 다른 곳으로 가는 체하고 교회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당시 중대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심장로가 와이신협의 직원들이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때 들은 말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은 아닐까?

심장로는 자신의 인생이 살아온 날보다는 훨씬 적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제 주님이 자신을 불러 가실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길 소원한다. 따라서 매일 매일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한다고 한다.

### 2. 믿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

그가 인제에서 근무할 때다. 그때 모시고 있던 교장이 병이 들었다. 당시 교감이었던 그는 병든 교장 선생님을 대신하여 열심히 일을 했으며 특히 병든 몸으로 강릉에 가려는 교장을 만류하여 그 학교에 그대로 머물게 했다. 병든 몸을 가지고 가면 어느 학교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병을 고쳐서 가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심장로는 그분을 돌보느라 4년간이나 그 학교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나중에 교장선생님은 모 교육원 원장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는데 가끔 찾아가면 그때 일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표한다고 한다. 심장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신자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불신자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다. 따라서 심장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일을 되새기며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와이신협도 그런 마음으로 이끌려고 한다. 와이신협은 본래 YMCA 신협이었으나 지역조합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었다. 와이신협으로 비록 이름을 바꾸고 조합원들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각각 반수이지만 사람들은 와이신협이 기독교금융기관인 것으로 모두 알고 있다. 따라서 심장로는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기도로 시작한다. "주여,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또한 모든 직원들이 일할 준비가 되게 하소서." 그뿐 아니라 매월 첫째 주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때 모시는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신협 직원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다. 심장로는 그렇게 하여 직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다.

와이신협의 목적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 사회적 활동을 통한 그들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심장로는 그 목적에 입각한 활동 즉,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먼저 선교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성인들 선교를 위해서는 기독교인합회를 후원하고 있고, 청년선교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군선교회를,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는 어린이 전도협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을 통해 장학금과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다. 그의 오랜 교육계 경력에 의해 현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나 서민들이 빈곤감은 더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와이신협에 수익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이런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이 기독교금융기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심장로는 이런 일을 위해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도로서 후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의 비전은 와이신협이 지역사회 곳곳에 신뢰감을 주는 금융기관이 되고, 조합원들에게는 바른 일에 투자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주며, 직원들에게는 고객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자기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심장로의 비전에 주님의 선하신 도움과 인도가 있기를 바란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웰빙 삼계탕 장 삼 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장삼원으로 오십시오!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메 뉴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 닭도리탕 · 한방백숙

※ 대형주차시설 완비
※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방향 500m지점

예약문의 (033)254-9191 · 9199



춘천기독교연합회

■ 부활절연합예배
1) 일시 : 4월 16일 주일 새벽 5시
2) 장소 : 시청광장

■ 십자가 평화대행진
1) 일시 : 4월 16일 주일 오후 3시
2) 장소 : 공지천 수변공원
3) 내용 : 공지천에서 도청까지 시가행진
4) 문의 : 033)256-1260

# '삶'과 '죽음'... 인생의 질문

인생의 질문인 '삶'과 '죽음'에 대한 변형으로 '잘 사는 법'과 '잘 죽는 법' 즉, 윤택한 삶과 긍정적인 죽음에의 방법론으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다.

웰빙은 건강으로 시작한 이미 너무도 익숙해진 삶의 패턴이지만 황성주, 이상구, 황수관, 이윙재 신드롬을 거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사회 보편적 가치관이 자리를 굳혔고, 먹을거리와 요가 등등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웰빙 바람을 타고서 새로운 인생에 들어선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

웰 다잉(well dying)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슬퍼함으로 상담, 죽음 에비학교 세미나, 천국에비학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슬픔치유모임 등등,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이들과 죽을 이들, 주변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누구나 맞이해야 할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며 치료와 돌봄으로 웰빙의 꼬리를 물고 따라온 뒷바람이다.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은 듯하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후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하셨다. 우리가 헛된 생활방식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바 되었기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옛 삶으로 돌러갔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우리들이,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 몸과 같이 되게 하며, 하늘에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잊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을 행하는, 자기 배가 그의 하나님이 되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밀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뛰어난 것들을 입증해야 한다. 웰빙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는가? 그 어떠한 건강, 웰빙의 전문가보다 우린 이 한마디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들어보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엡 6:1-3) 뭘 먹었더니, 요가를 했더니... 이렇게 잘되고 이렇게 장수했다고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오기를 바란다.

한 마디 더 해 보고자 한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지키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들을 말하지 말며, 악을 피하여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여 이를 좇을지니라."(벧전3:10-11)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잊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삼상2:6-7)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향하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드러나 있다. 이 세상의 행로에, 사람의 습책과 교활한 기교로 속이고자 매복한 자들의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말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롬14:7-8)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님이 되려 하심이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중에 당신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걷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있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며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빌1:20-21)

당신에게 문안한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함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요3서 1:2)

[편집부 이영규]

## 예 향

### 목자의 사명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높은 곳은 티벳 고원 해발 6300미터 지점에 있는 '골라란동' 이라는 곳이다. KBS 취재팀이 '까르마' 라는 분의 집에 찾아간 날은 영하 20도의 추위가 몰아치는 날이었다. 얼마나 추웠는지 카메라 작동이 멈출 지경이었다. 그런데 잠잘 시간이 되니까 까르마씨가 담요 한 장을 들고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어디를 가느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대답아기를 "밖에 있는 양떼를 이리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밖에서 잠을 잡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과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양들이 있는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영하 20도의 그 강추위 속에서 말이다. 그 무엇의 양지기도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영하 20도의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곁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까르마씨 보다 못하시겠는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

##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 [성시화 후원자 명단]

| | |
|---|---|
| 강촌감리교회 | 나눔성결교회 |
| 남춘천감리교회 | 늘사랑교회 |
| 동신장로교회 | 순복음춘천교회 |
| 순복음하나교회 | 사암중앙교회 |
| 소양성결교회 | 소양제일성결교회 |
| 사랑의침례교회 | 새순성결교회 |
| 순복음열린교회 | 서부감리교회 |
| 석사감리교회 | 온누리장로교회 |
| 예공침례교회 | 주천양교회 |
| 춘천임신교회 | 춘천북부교회 |
| 중앙장로교회 | 춘천동부장로교회 |
| 춘천성결교회 | 춘천중앙감리교회 |
| 평화감리교회 | 춘천제일장로교회 |
| 한빛장로교회 | 천일현수막 |
| 헤비타트(춘천지회) | 앤투어 |
| 쇼인테리어 | 디티피아 |
| 국민일보춘천지사 | 김 준 언 |
| 김 길 홍 | 김 현 철 |
| 김 영 명 | 민 병 업 |
| 박 동 환 | 성 기 은 |
| 신 성 균 | 신 종 휘 |
| 안 미 에 | 안 정 숙 |
| 엄 필 남 | 오 홍 수 |
| 이 국 정 | 이 용 규 |
| 이 원 기 | 이 원 영 |
| 이 판 호 | 이 학 규 |
| 이 병 연 | 장 기 영 |
| 정 친 복 | 조 은 제 |
| 최 경 용 | 최 상 호 |
| 최 처 광 | 한 희 현 |
| 황 병 찬 | 허 순 영 |
| 홍 성 운 | 홍 순 복 |

종합광고기획
DTPi 디티피아
- 인 쇄 : 명함, 스티커, 전단, 포스터, 카다로그, 각종봉투, 서식, 달력
- 판 촉 : 행사용 판촉물, 문구류, 판촉물, 각종판촉물, 행사 기념품(머그/우산등)
- 현수막 : 각종현수막, 실사현수막
"주님안에 나의 일이 헛되지 않아 입니다"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033.263.5152
Fax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대표 이 응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포 · 토 · 에 · 세 · 이

## 부활로 가는 길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 그냥 낮아지게 하소서
싫어 무너져 내린다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열지 않으신 문을 열려하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잡으려 하는 건
고통스런 여행을 늘어뜨립니다.
머리털 한 가닥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고
키 한 자도 늘리고 줄일 수 없는
작은 것도 주님께 기대어 살아있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가 높아지는 길만을 찾거나
내 뜻 이루기만 열중한다면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겠지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
부활을 기뻐하고 환희며 능력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연약함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을 향해 크리고 주님과 함께 걸음 옮기는 한
우리에겐 찬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죽기를 원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기에
그것은 죽음처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에겐 부활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 서규환 목사 (평성성결교회)

## 인물동정

**김기태 장로 은퇴**



감리교 동부연회 최고 고참 김기태장로(71,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지난 2월 10일 춘천서지방회에서 장로은퇴 찬하예배를 갖고 원로로 물러났다. 춘천성시신문집필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김기태장로는 37세에 장로가 되어 춘천중앙감리교회 선교부장을 비롯해 1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건축위원회 상임위원, 춘천서지방 장로회장을 역임하는 등 시무장로로 35년을 섬겼다. 횡성출신인 김장로는 도교육청 의사금 보남당관 도교육위원회 의사과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1996년 삼척도서관 장을 끝으로 공직을 퇴임했다. 지금까지 춘천기독교방송시청자위원장, 주간지 기독교타임즈동부연회 지사장 등을 맡아 기독교계 행사를 알리는데 힘써 온 김장로는 "원로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 감사드리며 교회봉사는 물론 지역사회 복음화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 행사안내

**월드비전**

♣ 사랑방모임
1. 일시: 2006년 4월 7일(금)
2. 장소: 월드비전 3층 강당
3. 내용: 삼천동/퇴계동 칠전동 거주 등록 가정 신선도모 및 부모교육 실시

♣ 파란글꽃그림잔치동요예선
1. 일시: 2006년 4월 8일(토)
2. 장소: 월드비전 3층 강당
3. 참가예상인원: 300여명
4. 내용: 5월 6일(토) 파란글꽃그림잔치 동요 본선 진출을 위한 예선

♣ 강원재활병원 무료검진
1. 일시: 2006년 4월 10일(월)
2. 장소: 월드비전 3층 강당

♣ 청소년 멘토링 부모교육
1. 일시: 2006년 4월 18일(화)
2. 장소: 월드비전 3층 강당

♣ 청소년 만남의 광장
1. 일시: 2006년 4월 22일(토) 2. 장소: 미정
3. 내용: 복지관 등록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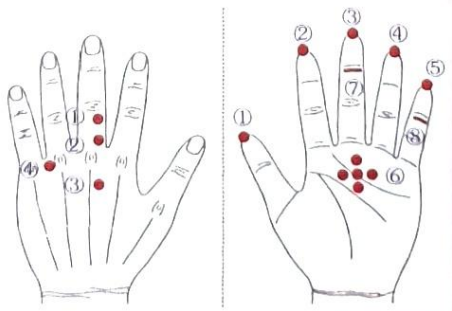
♣ 청소년 멘토링 나들이
1. 일시: 2006년 4월 29일(토) 2. 장소: 미정

♣ 제13회 어린이 연합친양축제
1. 일시: 2006년 6월 24일(토) 16:00 ~ 18:00
2.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3. 참가신청서 접수: 3월 31(금)까지
- 성가대 및 찬양대 소개서와 사진(담임목사님, 성가대장, 지휘자, 반주자,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사진 - 건물 혹은 교인 단체 사진)을 함께 제출.
- 참가 교회마다 2곡을 접수하되 곡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신청하는 교회에 우선권.
4. 문의: (033) 254-7244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건강상식

## 수지침의 응급처치



수지침요법은 손에서 발견한 인체의 상응부위(相應部位)와 내장(內臟)의 기능을 조절하는 14기맥(氣脈)과 345개 자극 혈처(穴處)에 수지침(手指針: 길이2㎝)을 1mm 정도 자입(刺入) 하거나 서암봉 서암뜸 수지침반지 수지전자빔 자석 염파(念波) 사이버수지침 등으로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유태우(柳泰佑) 박사(현 고려수지침요법학회장)가 1971년부터 연구를 시작, 1975년에 완성 · 발표한 학술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손수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의술이다.

배우기 쉽고 간편하며 안전하고 고통이 적은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위험 · 부작용 없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기에 많은 스트레스와 잦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에게 몇 가지 응급처치를 알려주고자 한다.

⊙ **중풍, 급체, 인사불성** - 손끝 ①~⑤번 피를 뽑아준다.(좌, 우)
⊙ **어깨(견갑통) 치료** - 손등 ①~④
⊙ **복통 치료** - 손금③④⑤를 사혈하고 위⑥에 다침하고 피를 빼준다.
⊙ **고혈압 환자 코피지혈** - 증지 첫마디 ⑦번 부위를 5~10회 정도 감았다 풀었다 한다.
⊙ **딸꾹질 응급처치** - 5지 첫마디 ⑧을 엄지손톱으로 꾹 눌렀다 놓았다 5~7회 반복한다.

수지요법에 관심 있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초강화를 받을 수 있도록 수지학회에서는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에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 고려수지요법학회 춘천지회 243-8844~5]

agapia 아가피아 강원지부

평범한 아이를 인재로 양성하는 아가피아 인재개발학교

공교육이 무너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교육도 돈만 많이 들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입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되었고 교회도 교회교육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학교(CHURCH SCHOOL-전인교육)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잘 훈련되고 실력을 갖춘 교사들만 준비되면 충분히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시스템과 훈련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가피아(아가페+유토피아) 입니다.

아가피아의 학습법은 유대인 학습법 등 전 세계 유수의 교육 학습시스템들의 장점을 살려 우리의 토양에 맞게 연구 개발된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21세기 꿈의 학습 시스템입니다.

13년간의 실험을 통해 그 놀라운 성과가 입증되었으며, 1년 안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배가될 뿐만 아니라 2년 정도면 대학교육 4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보다 더 논문을 잘 쓰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충남 서산의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는 아가피아 학습법의 산물입니다.

아가피아 학습은 영성, 지성, 체성, 감성, 관계성, 지도성, 전문성 등을 구성 요소를 기초로 인격과 비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 개발과 지도자 양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78개의 독서스쿨과 꿈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으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춘천에서도 4기에 걸쳐 1700여명의 교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고사양성과정을 마치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부모님들은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녀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홈스쿨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또래 그룹을 모아 독서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독서 및 논술지도 학원 운영도 가능합니다.
- 교회 내 방과 후 교실, 주말학교, 꿈의 학교(대안학교) 개설 운영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교회마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초, 중, 고등 과정)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교실 강사로 활동하는 등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탁월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 특히 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선교지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녀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드림교육 강원지부 (효자동312-1, 베드로 선교센타 5층) ☎ 241-9939 , 지부장 김성호목사 011-372-9100 사무국장 이보경목사 010-3234-6536 간사 이은미 011-9058-3711

## ♡ 춘천안디옥교회 봉헌예배



춘천안디옥교회(담임:유진형 목사)는 3월 1일(수) 오전 11시 감독회장 및 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성전봉헌예배 및 장로은퇴 · 취임예배를 드렸다. 8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춘천안디옥교회는 남춘천교회에서 춘천안디옥교회로 개명했으며 건평 3,300여평 지하3층 지상6층의 도내 최대 규모로 건립됐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춘천안디옥교회가 앞으로 춘천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 ♡ 21세기 교회 비전세미나



21세기 교회 비전세미나가 3월 6일(월) 오전 10시30분 평화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춘천지역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박영천 기독타임즈 국장이 '현대 교회의 비전'을 주제로 21세기에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 ♡ 어머니학교 춘천2기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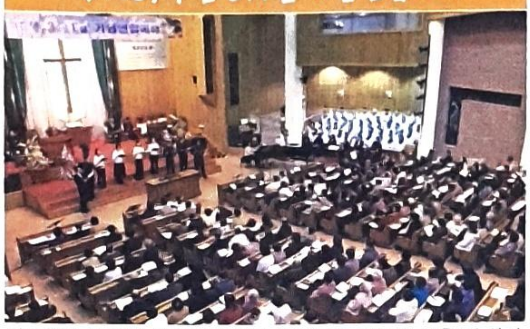
두란노어머니학교 춘천 제2기가 3월 9일(목) 오전 10시 순복음춘천교회 교육관 3층에서 개강하였다. 성경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고 이 땅의 어머니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어머니학교는 어머니의 진정한 회복 없이는 아버지의 회복도 없고 자녀들의 회복도 불가능하며, 진정한 가정의 축복은 어머니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정을 세우며 궁극적으로 '열국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게 된다.

## ♡ 춘천MPS 제10기 개강



제10기 선교세계관학교가 3월 11일(토) 오후 3시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18일 개강하였다. 이번 10기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주제로 예배와 강의, 소그룹토의 등을 통해 각국 선교에 적합한 세계관을 배우게 된다. 춘천 MPS는 2001년 9월 7일 시작하여 현재 약 60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고, 약 20여명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파송되었으며 수료자들은 모두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 ♡ 제87주년 3.1절 기념연합예배



제87주년 3.1절을 맞아 춘천기독교연합회는 1일(수) 오후7시 석사감리교회에서 3.1절의 뜻을 기리며 연합예배를 드렸다. 연합회 부회장 최현묵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장로연합회장 박한병장로의 기도, 월드비전 이명신관장의 성경봉독, 춘천중앙성결교회 시온성가대의 찬양, 수도침례신학대학 전 학장 권혁봉목사의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회, 고재만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권혁봉목사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시 103:15-19)라는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길은 오직 주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뿐이다"라고 역설했다. 기도회에서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원종국목사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 지용찬목사가, '교회의 연합과 춘천성시화를 위해' 조영호목사가 기도하였고, 이어 3.1절 의미를 되새기며 손학균목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허천국회의원과 류종수 춘천시장의 축사 후, 김주환목사의 선두로 만세삼창을 외치고 2000여명의 성도들은 3.1절의 숭고한 정신을 상기하며 애국가를 힘차게 불렀다. 그리고 모든순서를 김주환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 제1기 성시아카데미 개강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교육원(원장:피종호목사)이 주관하고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박성호)가 후원하는 '제1기 성시아카데미'가 3월 21일(화) 오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에서 개강했다. 이날 사무총장 조영춘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강예배는 홈리클럽회장 이학규장로의 기도, 연합회장겸 본부장이신 박성호목사가 '관심, 무관심'(마11:15-19)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춘천MPS설립이 민경원집사의 헌금기도, 교역자연합회장 최현묵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본부장을 지낸 조남진장로의 '성시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주제특강이 이어졌다. 21세기 미래 성시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이번 성시아카데미는 신기형서울여대교수의 '하나님나라와 리더십', 허문영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민족복음화와 통일한국운동', 다큐 '팔복' 김우현PD의 '그리스도인과 문화', 양병무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의 '지방자치와 경영전략', 박인관목사(춘천광염교회)의 '은사별 네트워크사역' 등 12강의로 6월20일까지 매주화요일 오후 7시 나눔성결교회에서 진행된다.

## ♡ 아버지학교 춘천5기 수료



아버지학교 춘천5기가 3월 25일(토) 오후 5시 석사감리교회에서 5주차를 끝으로 수료식이 치러졌다. 이날 약 120여명의 수료생들은 아내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과 더불어 자녀들 앞에서 순결한 아버지로 거듭날 것을 서약하고 순결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순결 서약식'을 가졌다. 아버지학교의 큰 호응에 힘입어 청소년, 대학생 등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춘천1기 예비 아버지학교가 개설되어 4월 8일(토)부터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 ♡ 제2회 홀리클럽기도회



제2회 홀리클럽기도회가 3월 31일(목) 오전6시30분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춘천홀리클럽에서 주최한 이날 기도회는 본회 부회장 김태권장로의 사회, 자문위원 박한병장로의 기도, 제일감리교회 원종국목사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렘4:1~4)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이어 현 한국홀리클럽연합회 대표회장 전용태장로전 춘천지검검사장)의 "성시화운동 방향"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전용태장로는 "성시화운동은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범죄를 추방하며, 총체적 성경운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홀리클럽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 하나 되어 잘 감당하길 소망한다."고 역설했다. 회장 이학규장로의 인도로 '춘천성시화, 교육(학원)의 복음화, 가정회복, 퇴폐풍조 추방, 애국애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분과위원 조직보고와 애국 · 환경 · 기도운동 등 홀리클럽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였다.

## ♡ 청소년축제



"2006 청소년복음화대회"가 3월 25일(토) 오후 5시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예스컴(대표 간사: 김선희)이 개교회 중고등부의 부흥과 학원복음화를 위한 발돋움을 목적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춘천 · 양구 · 화천 · 홍천지역의 청소년들 약400여명이 '청소년부흥'이라는 한 소망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찬양을 시작으로 김희산 목사(중앙감리교회)가 기도를, 기독교연합회장 박성호목사가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를 제목으로 말씀을, 홍천 기독동아리(코람데오)가 특송을, 양구예스컴(소망의 언덕)이 드라마를, 학부모(강정구 권사) 교역자(박성령 목사) 기독교사(송은미 교사) 학생(김진솔 학생) 대표가 각각 청소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제목을 내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선교단체협의회장 피종호 목사의 축도로 은혜의 시간을 마쳤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예스컴은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INI STEEL
(주) 대 한 철 강
대한가설산업(주)
상무 손 종 한
철근, H-Beam, 유로폼
단관파이프, 써포트
건설자재 판매 · 임대 · 중고매입
자재수리전문
주요 납품 실적
안디옥감리교회(구남춘천교회) 춘일감리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665
Tel : 033)254-3333, 251-6571~2
Fax : 033)244-3334 H·P : 017-376-2255
최고의 정제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

대학생활 solution :
온누리대학부가 있습니다!
• 예배와 생활의 일치됨.
•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
• 나눔과 섬김의 가족됨.
• 훈련과 양육의 제자도.
• 선교와 전도로 세계화.
● 대학을 다니며 신앙의 진보를 위해 정착 · 훈련하는 온누리대학부!
● 대학생활 중 1년 단기선교사로 구체적 선교헌신을 결단하는 선교중심적인 온누리대학부!
● 대학부교회를 위해 어른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지속한 온누리대학부!
▶ 담임 : 김창환 목사 ▶ 지도 : 엄기홍 목사, 윤문렬 간사, 김태
▶ 임원과 리더 : 최인기, 이형미, 장정일, 이미정, 구민정, 최하나
대학부수련회
온누리교회대학부
Chuncheon Onnuri Presbyterian Church
200-956 우평3동 43-7 교회/256-2161 교육관/242-4189 www.Onnuri21.org / onnuri21.cyworld.com

# 광 고

## 사 설



###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다.

박상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봄이 오면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각종 씨앗을 땅에 심는다. 그것은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되는 틀림없는 가능성 때문이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다. 어떤 어류학자가 어항 속에 메기와 함께 작은 물고기를 넣었다. 메기는 매일 작은 물고기 몇 마리씩을 잡아먹었다. 얼마 후 어류학자는 어항 중간에 투명 유리 칸막이를 두어 작은 물고기와 메기를 차단했다. 메기는 종전처럼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가다가 유리 칸막이에 부딪혔다. 이 일이 며칠간 계속 되더니 드디어 유리 칸막이까지 와서는 멈추어 서기 시작했다. 어류학자는 유리 칸막이를 뽑아냈다. 틈없이 작은 물고기가 메기 옆까지 갔다가 메기를 발견하고 달아난다. 작은 고기들이 유리 칸막이가 있던 지점을 통과 하자, 뒤 따르던 메기는 멈춰 서 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가로 막아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느꼈다. 즉 은연 중 불가능이라는 개념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한사람이, 아프리카에 구두를 팔기 위해 두 명의 판매원을 아프리카로 보내어 시장조사를 하게 했다. 얼마 후 두 명으로부터 FAX가 들어왔다. 한 판매원은 이렇게 보고 했다. "아프리카에 와보니 아무도 구두를 신고 있지 않음. 사람들이 구두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어 전혀 구두를 팔 가능성이 없음" 또, 한사람은 "아프리카에 와보니 아무도 구두를 신고 있지 않음. 그래서 구두를 팔 가능성이 무한히 있음" 경영자는 누구에게 아프리카 지사장이 되게 하겠는가? 요즘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너무 쉽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판단이 꼭 정의라고 생각하지말자.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맡기시고 펼치게 하신다. 우리는 항상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새 봄이다. 전에 안 되었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다시 새롭게 우리의 꿈을 심자. 금번 지방 선거를 통해 우리의 선택이 우리 삶의 주변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다.

##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쪽동 모임(중고교 기독동아리 리더모임)'
일시: 4월 1일(토) 오후 6:3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2)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4월 18일(토) 오후 6:30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강사: 이영우 목사(성공장로교회) 문의: 244-5400 내선(9257-517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여름수련회를 위한 여호수아 기도회'
일시: 4월 29일(토) 장소: 성우리조트
2) '민족 복음화와 춘천 성시화를 위한 기도회'
일시: 매일(월~금) 오전 6시 장소: 춘천CCC아카데미센터
문의: 254-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중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4월 4일 "선교적 헌신"(김지태)
❀4월 11일 "하나님과의 친밀함"(정재용)
❀4월 18일 "신분과 헌신"(박성원)
❀4월 25일 "재정"(조윤원)
2) 브로스길라(중보기도)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한신아파트 맞은편)
대상: 가정주부(관심있는 자매님)
3) 봄전도학교
일시: 4월 4일(화)~7일(금) 오후7시~11시
장소: 강대 백록관 2층 소회의실
대상: 대학, 청년 회비: 3만원
문의: 033-252-1128, 011-234-8517

◆JDM
1) '부활축전'
일시: 4월17일(월) 오후7시30분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2) '지역간사 수련회'
일시: 4월 18일(화) ~ 21일(금) 장소: 경주
3) '각 대학별 MT'
일시 : 4월 28일(금)
4) '제3차 슈퍼선교대회'
일시: 7월 4일 ~ 21일(17박 18일)
장소: 유럽(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대상: 선교를 사모하는 자(신청마감 4월 10일)
비용: 250만원 예정 문의: 252-3192 / 011-9058-3192

◆IVF
1) '강원지역 간사연합모임'
일시: 4월 12일(수) ~ 13일(목) 장소: 강릉 IVF회관
2) '전국 간사훈련'
일시: 4월 17일(월) ~ 20일(목) 장소: 대전 옥천 좋은동산
문의: 252-5200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전도 주간 강습회'
일시: 3월 13일(월) ~ 5월 22일(월)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00~1:00 / 저녁반 7:00~10:0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idv]

◆ GBT
1) 'GBT춘천지부 위클리프스쿨 개강'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장소:에덴교회
2) GBT위클리프스쿨 오픈강좌
강사: 권성진 선교사(GBT대표, 이프카니스탄 사역)
일시: 4월 10일(월) 저녁 7시
장소: 에덴교회(팔호광장 벨상드에서 후편동편)
문의: 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 [033@gbt.or.kr]

◆아가피아 드림교육
1) 아가피아 독서교사 교육과정
일시: 2006년 4월 3일 ~ 7월 17일 오후7시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문의: 아가피아 강원지부(241-9939, 011-9068-3711)

◆ 성시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6시30분 장소: 에굉침례교회(춘천경찰서뒤)
문의: 춘천성시본부256-1260

◆ 성시아카데미 개강
일시: 3월 21일 ~ 6월 20일 매주 화요일 오후7시~9시30분
장소: 나눔성결교회 등록비 : 5만원, 매주 자유헌금
문의: 춘천성시본부256-1260, 010-3118-9356 [www.holycit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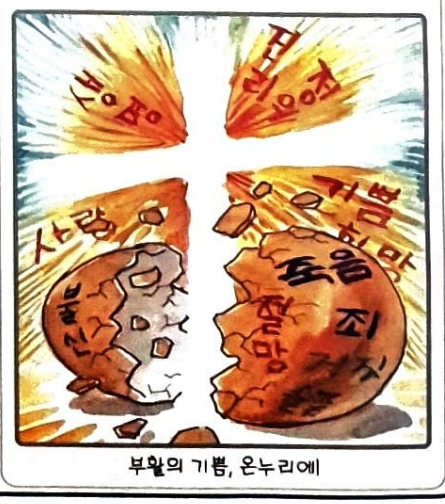
◆춘천1기 예비 아버지학교개설안내
대상: 청소년,대학생(미혼남성)
일시: 4월 8일(토)~4월 29일(토)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인원: 70~100명

◆세계태권도선교회
1) 착체3단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9시~11시
장소: 강원대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1-9791-6055

◆여호수아위십단성선교회
1) 위십 선교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7-374-2440

◆춘천기독교연합회
1) 부활절 연합예배
일시: 4월 16일(주일) 오전 5시
장소: 춘천 시청 앞
2) 십자가 명화대행진
일시: 4월 16일(주일) 오후 3시
장소: 공지천 수변공원
문의: 256-1200

◆캠퍼스 복음축제(EF, Evangel Festival)
일시: 5월 11일 장소: 강원대 백령문화관
주최: 기독교수회, 선교단체협의회 문의: 011-9068-3192.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곳!
영어완전정복을 향한 꿈-CELLA
CELLA(Cebu English Language Leaning Academy) 어학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도시 세부에 소재한 전문 영어교육기관(E.S.L)으로 필리핀 교육부(TESDA)의 인가 및 이민국의 SSP(Special Study Permit)허가를 받고 설립된 기숙식 영어연수어학원입니다.
CELLA 어학원의 특징
1. 최상의 학생관리
2. 최상의 교육프로그램(평가 및 교육시스템, 커리큘럼과 특별활동)
3. 우수한 교사들과 스텝진
4. 최상의 운영시스템
5. 최상의 부대시설 및 서비스
문의: 서울본사 02)594-3438 / 춘천지점 033)261-3438, 019-279-6604
허 장 호 안수집사(소양성결교회) / 위치: 애막골 2길
www.bestcella.com

춘천장로교 연합체육대회
1. 일 시 : 2006년 5월 5일(금), 오전 9:30~17:00
2. 장 소 : 위 도
3. 참가교회 : 춘천시 장로교회 120여개 교회
4. 종 목 :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유치부(4~7세)를 위한 마라톤대회(회비 오천원, T셔츠 제공)
5. 점심식사 : 교회별로 점심 및 다과 준비
6. 교회별 피켓준비 : 가로 60cm 세로 40cm
(바탕:노랑바탕, 청색글씨) 전체길이 1m
7. 후원계좌번호 : 농협204-01-161061(예금주:춘천장로교연합회)
8. 문 의 : 회장 지 용 찬 목사 011-372-6200
총무 지 태 성 목사 011-9010-5393